

차이를 인정하는, 사이를 찾아가는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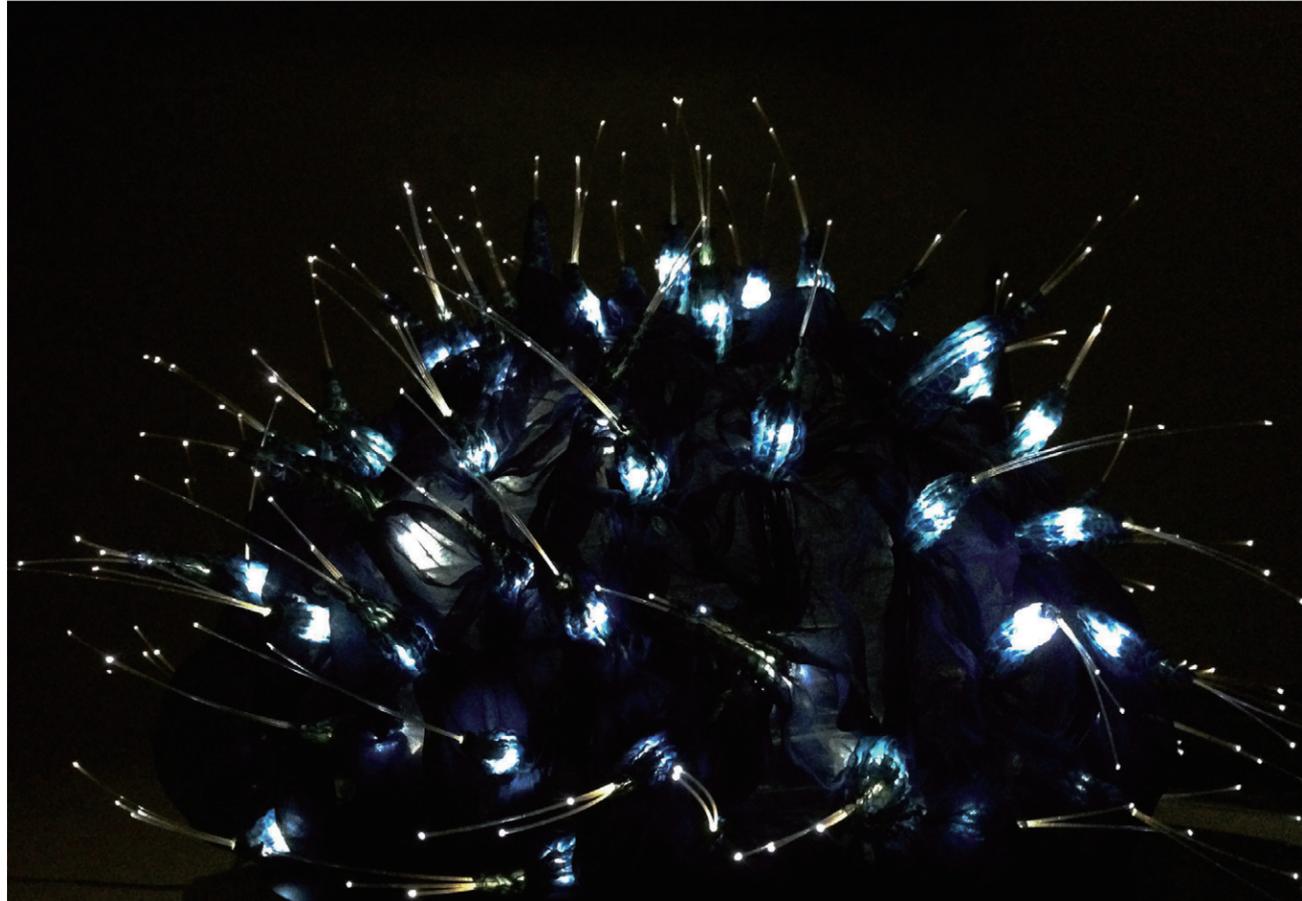
낮선아침

6호 2013. 12



이번호 테마

빛을 기다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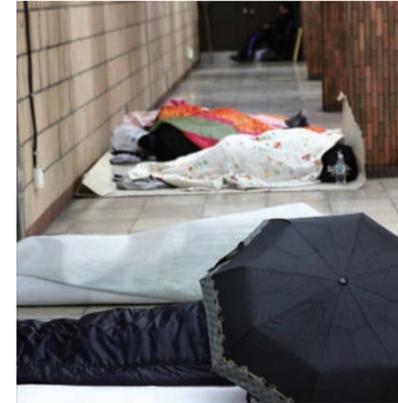
Jellyfish | 조민정 30x30x30 | 실크노방, LED전구, 광섬유, 산성염료

작품의도_ 심해를 유유히 가로지르는 투명하고 맑은 빛은, 눈 부신 빛 속에 아름다운 발레리나가 되어 춤을 춘다.

2011년 3월, 평소 입던 옷 위에 단체로 맞춘 티셔츠를 꺼입은 노숙인 출신 아저씨 12명이 연습실에 모였다. 그들은 일주일에 하루 세 시간 다리를 찢고 뒤통거리며 그를 따라 했다. 그 해 크리스마스 ‘호두까기 인형’에 출연해서 파티를 즐기는 귀족 역할을 맡았다.

– 최희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발레수업』

CONTENTS



Cover Story

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참으며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만물을 생성하게 하는 봄빛은 누구보다도 이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 빨리 봄이 오기를 기다리며….

02 아침의 미술	32 노숙인 영상제작단 체험 후기 영상미디어 교육을 받은 후에
04 낯선아침을 꿈꾸며 마음의 풍경, 그리고 겨울나기	34 책을 그리다 노숙자 소녀가 하버드대에 입학
06 낯선아침을 돌아보며 낯선아침의 두 번째 겨울나기	36 영화 속 노숙인 문화 미안해, 루시
08 낯선아침 시 거리에서, 시선 낯선아침 수필	42 외국인에 비친 한국 이상한 한국 문화
10 따뜻한 봄처럼 고마운	46 책이 있는 겨울 당신에게 행복은 어떤 것인가요
12 단지 겨울이라는 이유만으로	48 독자 투고 우리를 부르는 이름들
14 겨울입니다	50 미니 반짝 벼룩시장 마음을 나누는 시장
16 기획 봄을 기다리며 다가오는 봄, 당신과 만날 낯선아침	52 징검다리 김씨의 익숙한 하루
20 현장 재능을 나누면 흥겨움이 세배	56 낯선아침 정보 동절기 긴급 응급자리 소개
24 연재만화 노자와 영희	58 편집후기
28 특집 다큐멘터리 현장 노숙인 영상제작단	

낯선아침

발행일 2013년 12월 20일 6호

발행인 남송우

편집기획 이민경

편집위원 장병윤 김기태 김현수 서상훈 박우신 김병국 이재안 이민아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 TEL. 051 745 7264

표지사진 김병국 내지삽화 김철민 편집·디자인 박윤희

디자인 윤경디자인 (070-7716-9249)

낯선아침은 아침햇살의 진정한 의미를 담아낸 말입니다. 길든 일상이 아니라, 모든 타자와 경이롭게 공존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감을 향한 끊임없는 모험이 있는 아침입니다. 조금은 낯선 듯, 아침을 더 새롭게 꿈꿀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여행자가 될 것입니다.

마음의 풍경, 그리고 겨울나기

글_ 장병윤

11월 마지막 주말에 동해남부선을 탔습니다. 복선화로 해운대에서 송정까지 바다를 낀 구간이 사라진다는 소식을 듣고서였습니다. 아침시간인데도 다시는 보지 못할 풍광을 아쉬워하는 사람들로 자리가 꽉 찼습니다. 열차가 서서히 도심을 벗어나자 차창으로 바다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솔솔이 흘러간 자리에 초겨울 바다가 푸르게 뒤척이고, 그 위로 아침햇살이 눈부시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게으름을 부리며 늦잠을 만끽하던 휴일 아침에 부산하게 몸을 움직여 동해남부선 열차에 오른 것은 사라지는 풍경을 마음에 담고 싶어서였을 겁니다. 그날 아침 차창으로 흘러가던 해운대, 송정 바다를 바라보다가 불현 또 하나의 바다를 떠올렸습니다. 아주 오래 전의 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풍경이었습니다. 반갑게도 세월의 저쪽에서 건져 올린 그 풍경이 그렇게 또렷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산으로 오기 위해 원주에서 탄 심야 중앙선 열차 안에서 바라본 새벽 바다였습니다. 레일 위를 달리는 차체의 진동에 온몸을 맡긴 채 뒤척이다 밤을 꼬박 새운 뒤의 일입니다. 밤새 달려온 열차가 지친 기적을 울리며 송정으로 진입하자 눈앞에 기가 막힌 풍경이 연출됐습니다. 희부옻하게 밝아오는 새벽, 밤과 아침 사이의 회청색 경계에 선 바다. 그날 새벽 바다를 다시 조우한 일은 낡은 책갈피에서 발견한 오랜 엽서처럼 가슴을 떨리게 했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그리운 풍경 하나들은 간직하고 있을 겁니다. 흐린 하늘이 나지막하게 빌딩숲에 걸리는 이런 계절엔 기억 한 칸에 꼭꼭 숨어 있던 마음속 풍경들이 삶의 자리로 툭 떨어지곤 합니다. 이미 세상에 사라진 풍경이지만 그렇게 생생하고 따뜻한지. 그것들은 누추하고 고단한 일상, 무거운 삶의 틈바구니에서 세월의 더께를 털어내고 찬란하게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어떤 이에게는 아련한 유년의 풍경이, 또 어떤 이에게는 밤잠 못 이루던 청춘의 뒤편길에서 만난 풍경일 수도 있겠지요. 지금도 오지로 불리는 경북의 외딴 골짜기에서 자란 제게는 이맘때면 유난히도 어린 시절의 겨울 풍경이 떠오르곤 합니다. 눈 내린 어느 겨울 새벽에 방문을 열고 뜰에 내려서면 무릎이 푹 빠지던 기억. 길도 집도 들판도 세상을 온통 하얗게 덮어버린 일망무제의 세상. 그 전날 밤 잠결에 아득하게 들려오던 먼 산 소나무가 눈의 무게에 '뚜~닥'하며 부러지던 소리. 그 정겨운 모습들은 흑백의 풍경으로 저를 찾아옵니다.

질긴 바람소리가 아파트 창틀을 울리는 겨울밤이면, 연을 날리는 어린 소년의 모습도 떠오릅니다. 바람 잘 불어오는 고향마을의 얇은 언덕바지에 올라 얼얼터진 손을 불어가면서 날리던 연. 팽팽한 긴장으로 당겨져 오던 연줄에서 감지한 겨울하늘. 그 하늘을 가로지르는 한 폭 바람자락의 무게. 미지의 세상과 교신은 그렇게 시작됐나 봅니다.

수십 년 세월이 흘러 마음의 풍경은 비록 빛바랜 흑백이지만 여전히 맑고 따뜻합니다. 누구나 가슴속에 품고 있는 마음의 풍경들은 이 험난한 시절에 위로가 됩니다. 한 순간 정지한 지나온 삶의 궤적을 펼쳐 바라보는 시간은 행복감으로 차오릅니다. 지치고 험벗은 몸과 마음은 마치 따뜻한 어머니의 자궁 속을 자맥질하듯 편안해집니다. 피폐한 이 도시의 삶에 숨구멍이 터지는 순간이기도 하지요.

춥고 어두운 겨울밤 당신의 마음속 풍경 한 자락 꺼내 마주해 보세요. 그 정겨운 풍경을 가까이 있는 이웃과 함께 나누면 더욱 좋고요. 이제 한 해가 긴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음속의 풍경을 통해 우리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귀중하고 거룩한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따뜻하게 위로 받을 수 있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길 또한 따뜻한 연민으로 가득 찰 테니까요.



장병윤 : 국제신문 논설위원, 낮선아침 교문

낮선아침의 두 번째 겨울나기

글_ 이민경

낮선아침은 올해로 벌써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한다. 그런데 체감온도는 처음 영하를 접해본 따뜻한 지방의 사람처럼 그저 낫설고 매섭다. 노숙인에게도 겨울은 늘 그런 계절일 것이다. 매 겨울을 맞이할 때마다 그해 겨울을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내년 건강에 적신호가 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제 낮선아침은 어느새 그들과 주기를 함께한다. 올해 겨울을 잘 넘기지 못하면 내년 봄 즈음에는 낮선아침의 건강에 적신호가 울지도 모른다. 그래서 필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발행된 낮선아침을 되짚어 보고 내년을 처방 받고자 한다.

1. 종이의 재질이 너무 좋다?

창간호가 발행 된 이후 빈번하게 들은 말 중 하나가 주 독자층이 노숙인이라면 종이의 재질은 이보다 낮은 것이 오히려 기획의도에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하지만 편집진에서는 이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주 독자층이 노숙인이기 때문에 이 재질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2012년 10월 15일 부산일보 사회면에 전 편집위원 김희진(현 또따또가 운영지원센터장)의 낮선아침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노숙인들이 애용하는 잡지는 못되더라도 적어도 그들이 깔고 앉거나 비오면 머리에 쓸 수 있도록 크기, 종이 질을 고려해 만들었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다음호가 나올 때까지 들고 다니면서 배식정보를 보려면 잡지가 튼튼해야 한다는 것이 편집진이 이를 고집하는 이유이다.

2. 노숙인 참여 글이 많이 부족하다

이 말은 요즘 들어 필자가 부쩍 많이 듣는 말이다. 돌아보면 창간호 이전 준비 단계부터 편집진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자 숙제와 같은 것이었다. 찾아가는 영화관 (문화이용권 부산 기획사업 중 노숙인 대상 사업) 현장을 가보면 말씀을 정말 맛깔나게 잘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우스갯소리로 이전에 사회에서 한 가닥씩 안하신 분들이 없단다. 그런데 글로 써 달라 부탁하면 그저 손사래다. 펜을 잡아본지가 옛날, 맞춤법도 기억 안 난다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다가 “내 얘기 대신 받아 써줘.” 하면 그나마 황재다. 생각해보면 외국을 가 봐도 손짓발짓 동원하면 의사소통은 되는 것도 같은데 이메일 한 줄 쓰고자 하면 그저 진땀만 흐르는 것이 하루 종일 문법 맞추고 있는 심정 아닐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들의 자유로운 감정을 시낭송 및 글쓰기 또는 사진이나 그림과 같은 작품으로 연결 할 수 있는 동아리를 활성화시켜 자연스럽게 기고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3. 전 편집위원 벼룩시장을 열다

처음 낮선아침을 발행하기 위하여 모인 편집진은 대부분이 예술가로 노숙인과 소통하기 위해 그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했다. 그것은 문화도, 예술도 아니었다. 바로 현실. 먹고 살아내야 하는 이 현실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술가들은 생각지도 못한 노숙인과의 동질감을 찾아냈다. 그리고 노숙인 편집위원 김현수씨의 의견에 따라 작은 벼룩시장을 열기로 하고, 물건은 무조건 의식주에 필요한 생필품으로 구성했다. 노숙인과 예술인 그 두 부류가 먹고 살아내기로 소통하기 시작한 것이다. 작은 돛자리 하나 퍼지면 하나 둘 모여 물건이 사라질 때까지 시끌벅적 아우성이다. 정말 눈 깜짝하면 사라지는 물건들로 벼룩시장을 연지도 일 년이 넘은 지금은 벼룩시장에서 친해진 분들과 폐지 줍다가 만나면 인사도 주고받는다.

발간시기	1호 (2012. 10)	2호 (2012. 12)	3호 (2013.5)	4호 (2013. 7)	5호 (2013. 10)
주제	공간	오늘은 뭐 먹지	한 마디 말이라도	함께 걷는다는 것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
변화정도	· 벼룩시장이 처음 열리던 날 부산진역 앞에서 장사꾼으로 오해 받음. · 낮선아침 1호가 발행됨 · 노숙인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이익을 취한다고 노숙인들의 반발을 샀.	· 평화장터에서 벼룩시장에 정기적으로 물품 후원 · 예비사회적기업 바이مام에서 외풍 차단텐트 10개 후원(원고기고자에게 전달) · 노숙인 한분이 본인의 물품을 장터에 내놓음	· 부산 동아대 섬유미술학과 왕경애 교수님께서 전 기온수기 및 썬크대 후원 (부산진역 간이천막 앞에 설치) · 노숙인들이 직접 잡지를 배포함	· 벼룩시장 날이 되면 아저씨들이 편집진의 물품을 받아 옮겨줌 · 사진 찍는 것을 꺼려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사진을 찍어 주겠다고 함	· 겨울을 대비하여 서로가 서로의 옷을 선물함

〈 낮선아침 벼룩시장이 만들어 낸 변화정도 〉

4. 벼룩시장에 찾아온 위기

만남이 있기에 이별이 있다고 했는가. 기존 편집진의 임기에도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편집진이 구성되었다. 기존 편집진의 열정으로 이루어진 벼룩시장이라 혹시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벼룩시장의 운영형태나 소통의 방법은 다를지라도 새로운 편집진 역시 벼룩시장이 해 왔던 역할과 소통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어나갈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2014년에도 꾸준히 벼룩시장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번 2013 겨울호부터 뭉쳐진 새로운 편집진은 노숙인과의 관계형성에 더욱 노력하고자 노숙인 기관의 실무진과 재활동인 노숙인으로 대부분이 구성되었다. 그러나 낮선아침 본래의 취지인 예술인과 노숙인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 내는 작업에 충실할 것이며 2012년부터 어떤 잡지보다 열정을 가지고 낮선아침의 발간과 노숙인과의 관계에 힘써준 전 편집위원과 그동안 벼룩시장에 알게 모르게 마음을 보태주신 김해 독서모임 회원들께 감사를 전한다.

이민경 : 부산문화재단 문화복지팀

거리에서

서상훈

오라는 곳 없으니
 갈 곳도 없지만
 목적 없는 발걸음
 하루 종일 옮기다가
 지친 몸
 남의 집 처마 밑에
 잠시 앉혀 봅니다.
 주린 속은
 쓴물을 올리게 하고
 추위에 떠는 몸은
 한 겨울 맹추위를
 피하라 하지만
 가진 것 없는 나는
 어느 것 하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때보이는
 맞은편 가정집의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뽀얀 불빛은
 더 할 수 없이
 따사롭고
 평화롭게 보입니다.
 저곳에서 잠시나마
 추위에 지친 몸
 녹을수 있다면
 구수한 된장찌개 끓여
 하얀 쌀밥 한술 할 수 있다면
 그러나 그 생각은
 지친 몸 더욱
 힘들게 한다네



시선

서상훈

종이박스 한 장
 바닥에 깔고
 신문지 한장 겹쳐 이불삼아
 지하도 바닥에 누워
 억지잠 청해 보는데
 오고가는 행인들의 시선
 따가와라
 제발
 경멸에 찬 눈초리로
 동정의 눈초리로
 쳐다보지 말고
 그냥
 가는 길 재촉하시오
 나는 지금
 삭풍 몰아치는 지하도의 겨울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싸움중이랴오



그림_ 김철민

서상훈 : 젊은시절 일이 잘 안풀려 생과 사의 기로에 섰을 때 금정희망의집을 만나 다시 삶의 활력을 찾았으며 지금은 시설 근처 여인숙에서 생활하고 있다. 시 쓰기를 좋아하여 금정희망의집 시 동아리에서 활동 중에 쓴 작품을 낮선아침에 꾸준히 기고 중이다.

따뜻한 봄처럼 고마운

글_ 김현수, 그림_ 김철민

2011년 2월 부산으로 무작정 상경해 노숙생활을 시작했다. “왜 노숙인이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업 실패, 채무, 사기, 마음의 상처 등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부랑인, 노숙인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다. 노숙인은 장애처럼 언제든 누구나 불시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믿고 있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마음은 고통스럽다. 극심한 생활고와 지붕 없는 차가운 바닥에서 신문지와 이슬을 이불삼아 몸을 누일 수밖에 없었다. 신체의 고통은 어느 정도 줄여 줄 수 있지만 마음에서부터 오는 아픔은 달래기가 어려웠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마음조차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 노숙인의 마음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나? 세상은 내가 기대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낮선아침> 이번 호 테마가 봄을 기다리며이다. 12월 거리는 어느새 세찬 바람에 은행나무 잎이 우수수 떨어진다. 생명체는 상황에 따라 어디든 삶의 터전을 마련해야 하지만 가장 적합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그러나 노숙인의 행복은 노숙인 본인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이 겨울 2014년 봄이 오기 전에 얼어서 죽기 때문이다. 이처럼 각각의 노숙인은 저마다 겨울을 살아가는 방식을 갖고 있다.

저처럼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인생을 포기하려했던 그때, 그 마음으로 부산에서 첫눈 겨울을 맞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눠주며 살고 싶다.

이 겨울 따뜻한 부산으로 오는 분들께!!

아프고 고통 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지만 노숙인 인으로 산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인내와 양보가 필요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혼자 이겨내고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외로운 세상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늘 만났던 노숙인의 힘겹고 외로운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부산역 계단에서 차가운 겨울바람에 오그라든 몸에 한기를 잔뜩 품고 아침 햇살조차 버거워 잠에 취해 있는 형제들의 모습이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새겨져 있어서 힘이 들었습니다.

2014년 봄은 이 세상 살아 있는 자에게 오는 것은 죽은 자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저는 부산서면에 있는 노숙인 쉼터, 그리고 초량에 있는 소망관 노숙인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얻었고, 지금은 부산 초량에 있는 노숙인 상담센터 동구쪽방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노숙인 쉼터, 노숙인 지원센터, 지금 제가 등록하고 있는 동구쪽방 절차는 먼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1:1 상담을 통해 개인의 특성에 맞도록 복지용구를 리폼하여 배송 설치하고 사용설명 및 관리방법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권리를 찾지 못하는 거리의 노숙인을 보며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 가운데 제일 앞



에 놓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 모든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루하루 세상과 부딪히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용두산공원, 부산진역 등 무료급식소에서 밥을 줍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로 부터 조롱을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형제로 인정을 받습니다. 지금 함께 생활하는 형제들과 생활하며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이 이 겨울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자없이 살아도 추운 겨울 소주 없이는 못할 정도로 소주가 노숙인의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십 중반의 제가 이럴진대 젊은 사람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앞으로는 소주 보다는 생수 페트병을 들고 다니다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서 배와 가슴에 감싸고 잠들면 추위도 조금은 사라졌습니다.

3년을 되돌아보면 단 한 순간도 평범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가족도 버리고 사회도 버리고 그 누구도 생명을 지켜주지 않아서 스스로 삶을 버리고 싶었지만 나에게 아직은 희망있습니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를, 그리고 이 책이 형제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4년 부산의 따뜻한 봄을 꿈꾸면 겨울을 어떻게 살아 남는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나의 부족함으로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고통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습니다.

부랑인, 노숙인으로 지금 서있는 현실 앞에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으로 멋진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자 다짐 또 다짐해 봅니다. 지켜봐 주시고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 들곳 없는 세상에 볼 때마다 늘 불편치 않게 신경 써 주시는 쉼터, 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의 눈동자를 통해 따뜻한 세상을 봅니다.

김현수 : 삶의 의욕상실로 노숙하던 중,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자립하면서 현재는 매일 임대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봉사활동 및 적은 돈을 푼푼이 모아 더 나은 꿈을 이루고자 준비 중이다. 최근 영상제작단 모임과 교육을 통하여 삶의 활기와 재충전으로 푼푼 뭉쳐계신다.

단지 겨울이라는 이유만으로

글_ 김창식, 그림_ 김철민



저는 요즘 엄청 행복하고 기쁨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춥고도 고달픈 생활을 하였지만 지금은 따뜻한 나의 집과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날이 다가왔어도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못한 나를 항상 따스한 관심과 사랑으로 챙겨주시는 동구쪽방상담소의 모든 선생님들과 소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언제나 노력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정말 이번 겨울은 춥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 몸조심 모두가 건강하게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추운 겨울을 이겨냈으면 합니다.

요즘은, 상담소에서 주최하는 <희망의 인문학> 강의와 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미디어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냥 와서 시간만 떼우고 가는 상담소가 아니라 우리 쪽방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체험과 배움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인문학> 강의를 끝나면 자원봉사자분들께서 만드신 식사가 얼마나 맛있는지 꿀보다도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새롭게 시작하게된 미디어체험 동아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카메라도 잡아보고 촬영도 하면서 초음 어린이대공원 야외에서의 촬영 체험도 좋았습니다.

마친 후에는 가르치시는 강사 선생님들과 동아리 회원들이 나의 집을 방문하여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누고 촬영하면서 예전에 몰랐던 새로운 행복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함께 맛있는 저녁식사도 하면서 서로를 돌아보는 모습이 저의 마음을 찡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상담소가 배움의 쉼터, 나눔의 쉼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잠자리가 힘들어 고통과 외로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선하게 떠오릅니다. 월동준비와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식 : 어린시절부터 가족과 단절된 채 홀로 생활하다 부산으로 이주했다. 쪽방상담소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 원룸형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 뒤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있다.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이 많으며 각설이 품바 활동을 하신 경험이 있다. 2013년에는 노숙인 영상제작단 다큐멘터리 "내 겨울의 창을 열다." 주인공으로 활약했다.

겨울입니다

글_ 박우신, 그림_ 김철민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과 겨울 중간에 있어 추위를 예고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는 가을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곧장 겨울이 왔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겨울, 지금까지 살면서 수 십번 체험을 해서 겨울 추위쯤이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으련만 이번 겨울도 변함없이 “잘 견뎌내야 하는데”, “아프지 말아야 하는데” 등의 걱정을 부질없이 하게 됩니다.

얼마 전 첫 추위가 갑자기 찾아 왔을 때, 이불을 뒤집어 쓰고 TV뉴스를 보고 있는데, 스키장비를 어깨에 멘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스키를 탈수 있는 겨울이 와서 좋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같은 땅, 같은 공기를 마시고 살아도 사는 형편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새삼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할 때, 나는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왜냐하면 두꺼운 옷, 두꺼운 이불, 전기장판 따위의 생활용품이 필요하고 온기라고는 조금도 없는 쪽방에서 사는 나는, 생활하기가 불편하고 힘들어 겨



울은 없어져서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아닌 삼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엉뚱한 상상도 해 보기 때문입니다. 스키를 탈 수 있어 겨울이 좋다는 사람을 보니 겨울은 가난한 사람들의 계절옷이 아닌것은 확실합니다.

요즈음은 바깥 날씨가 추워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쪽방상당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 생활이 단순하고 단조롭습니다. 겨울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내 몸 하나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간절해져 주위사람들에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쪽방상당소를 이용하는 동료들에게도 마음을 주고 받는 것보다는 무료급식이야기 지나간 과거의 추억담 어느 교회에 가면 돈준다는 이야기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프로야구선수 연봉 액수 따위의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이야기만 주고 받다 보니 거리감이 생겨 대화를 해도 싸늘하고 허전합니다.

그렇더라도 혼자 있으면 더 추워지니까 싸늘하면 싸늘한 대로, 의견 충돌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받아들이면서 약하고 서러워서 공연히 거칠고 소란스러운 동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 손을 잡고 서로의 온기로 겨울을 보내야겠습니다. 2014년에는 여러 사람과 나눌 수 있는 큰 기쁨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배워라, 난민 수용소에 있는 남자여!
배워라, 감옥에 갇힌 사나이여!
배워라, 부엌에서 일하는 부인이여!
배워라, 나이 60이 남은 사람들이여!
학교를 찾아가라, 집 없는 자여!
지식을 얻어라, 추위에 떠는 자여!
굶주린 자여, 책을 손에 들어라, 책은 하나의 무기다.
당신이 앞장을 서야만 한다.

- 베르톨트 브레히트, 「배움을 찬양함」 중에서

박우신 : 시력이 좋지 않아 글을 읽는 것이 힘든 분이다. 그러나 책임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므로 상담소 작은 도서관에서 자주 시간을 보내신다. 평소 쪽방상담소에서 진행하는 <희망의 인문학> 강좌에 꼬박 꼬박 참여하고 계신다. 1호에서도 독서감상문을 기고하셨다.



부산역 밤



다가오는 봄, 당신과 만날 낮선아침을 꿈꾸다

글_ 이민아

여름에서 가을, 노숙인과 <낮선아침>의 1기 편집위원 몇 분이 함께한 벼룩시장에 몇 차례 간 적 있다. 그날부터다. 노숙인과 홈리스라는 말로 불리던 이들을, 인디언식으로 이름 짓자면, '이슬의 부족'쯤으로 부르고 싶었다. 노숙을 처음 결심했던 이들이 한없이 부끄럽고 두려움 많던 시절, 그들의 눈매가 짐작되고부터. 이슬의 부족이라 부르는 순간, 노숙이라는 말이 희망의 담쟁이가 되어 내 마음의 벽을 넘고, 그렇게나마 스스로를 위안했었다.

벼룩시장에 앉아 손끝에 이슬을 짖어 시집 한 권 읽고 와서, 거기서 산 500원짜리 반팔 셔츠를 입고 여름 내내 영도 갈매길을 걸었다. 그런 인연이 닿아 지난 달 <낮선아침>의 2기 편집위원 회의에 함께했다. 한 겨울, 동사하지 않고 봄을 맞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노숙인이 월동준비에 임하는 각오라는 말. 자활에 성공해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김현수 편집위원에게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거웠다.

거리상담 '아웃리치 활동' 시간과 일정이 맞지 않아, 혼자 지하철 중앙역, 부산역, 부산진 역사로 가 보았다. 바깥보다 냉기가 조금 누그러진 지하도라고 해도 신문과 박스로는 치명적인 추위를 막진 못한다. 얼마전 외국에서 예배당을 훔치기 동안 노숙인 잠자리로 제공한다는 글을 봤다. 그날따라 도심의 화려한 성탄 장식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다.

돌아와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펼쳤다. 문 잠긴 예배당 문 밖에, 흡사 방금 내가 보고 온 노숙인의 모습으로, 인간 세상에 던져진 '천사 미카엘'이 웅크리고 있었다. 헐벗은 그를 발견한 가난한 부부는 집에 남은 마지막 양식과 옷가지, 잠자리를 '낮선'이에게 내주었다. 온 곳도, 갈

곳도, 묻거나 따지지 않고, 오로지 미카엘이 삶의 의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보살폈고, 자신의 직업인 구두 만드는 일자리도 나누었다.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삶 속에서 자신들의 궁핍과 타인의 처지를 견주느라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던 작품 주인공들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가족이 되어주고, 일자리를 나누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자신의 재능을 나눔으로써 낮선 사람의 가치를 되살리는 삶. <낮선아침>도 지역자활단체, 마을공동체, 봉사단체, 기부단체의 이야기가 녹아들어 진정한 소통 창구가 되길 꿈꾼다.

노숙인과 일반인의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들이 함께 마주해 사회 계층간 통합과 회복의 의지를 확인하면서, 서로에게 무엇이 절실한지 확인하고 실천적으로 돕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하길 희망하며 출발한 잡지 <낮선아침>.

하지만 우린 저마다 타인의 삶에 진심으로 마음을 기울이는 데 익숙하지 않은 '마음의 쪽방촌 거주자'일지도 모른다. 지난 한 해, <낮선아침>을 낮익게 바꿀 '편견의 일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했다. 노숙인과 함께 시 한줄, 사진 한 장 같이 나눠보지 않았다. 나 스스로 부끄럽고 아쉬운 일이다.

'다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순간을 꿈꾸며, 손수레를 구입해 신문이며 헌옷 박스 고철을 모아 저축하면서 원룸형 임대주택에 입주했던 김창식 씨. '모두가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소원'이라던 홈리스 창식 씨를 희망과 손잡게 해 준 쪽방상담소의 역할이 새삼 고맙다. 생의 기운을 나누는 봄날을 '다시' 한 번 꿈꾸려 하는 우리 모두

에게도 필요하리라.

부산 시민이면서도 불편한 진실이기도 한 노숙인. 이 소수자를 위한 별스러운 잡지를 만들어 애먼 글면 꾸리는 일은 비단 부산문화재단만의 까다로운 숙제가 아니길 바란다. 시민이 다각도로 참여해 상생과 변화의 스토리를 창조해 낼 소중한 가치가 담겨있는 '원석'이란 믿음이 있다. 그 러프 다이아몬드를 세공하는 것은 바로 귀하의 하루를 나누는 배려에서 시작된다.

노숙인, 홈리스 대부분은 경제적 이유나 개인 사정으로 자신의 소속과 출신을 밝힐 수 없고, 여전히 뒷모습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이들이 수단이 되지 않고 목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낯선아침 지면과 행간에 노숙인의 자립과 자활의지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분들의 노력 또한 적지 않았으리라.

그들의 곤고한 삶과 꺾인 사연을 재촉해 창작 결과물을 기다리는 것도 온전히 그들을 위한 자세는 아닐지 모른다. 선불리 몇 줄 시나 에세이로 삶의 각오와 반성, 희망적인 메시지만 가득 담아 판화처럼 찍어 선보이는 일보다, 스스로를 지키려는 마음의 회복을 돕는 일, 그래서 자발적으로 삶의 창조 주체가 되고 싶어지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절실하다.

창조경제의 핵심 사례로 손꼽히는 로봇천재 데니스 홍. 그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한다는 말과 함께, 현재 자신이 진행 중인 '재난 구조용 로봇 개발 프로젝트 THOR(Tactical Hazardous Operations Robot)'를

인류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렵고 실질적으로 금전적 규모가 가장 큰 로봇 대회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덧붙인 한마디는, '승패에 상관없이, 만일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미래에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언젠가 <낯선아침>의 존재 이유가 단 한사람의 소외된 이를 위한 것이지 않냐던, 자칭 '전직 노숙인 김현수' 편집위원의 글이 생각난다. 노숙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질타보다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노숙의 삶으로 내모는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는 지점에서, 2014년에는 <낯선아침>의 지속 가능한 비전에 동참하는 귀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길 소망한다.

이제 이런 노숙에 대한 편견과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줄 부산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가 가동되길 꿈꾼다. 부산시와 16개 구·군을 비롯한 부산상공회의소, 지역 언론사, 금융기관이 함께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다. 안전행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부산시의 공무원이 협력해 시민과 노숙 인식 개선의 접점을 찾기를!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실내 보온텐트를 제작해 후원했던 예비사회적기업 (주)바이맘(대표 김민욱)은 <낯선아침> 후원 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후 부산 강소기업 등의 물품후원이나 기업들의 메세나 지원이 이어지길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 아직 이루지 못했기에 이를 것도, 꼭 이루고 싶은 꿈도 많다. 사회적기업과 소셜 펀딩도 이 분야 해법을 모색하며 진화했으면 싶다.

노숙인의 건강을 돕는 착한 목욕탕도 생겼으면,



알콜중독 치료 재단도 생겼으면, 부산역에 지혜의 등대 도서관 겸 상담센터도 생겼으면, 노숙인의 자활을 돕는 청백리 공무원 상도 생겼으면, 노숙인들이 먼저 동아리를 만들고 같이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운동도 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해왔으면, 취직했다는 이야기도 들렸으면, 청소년 청년들이 이들을 위한 플래시몹을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됐으면, 그런 일들이 지역 언론에서 연일 보도됐으면...

새해에는 공공기관과 기업이 이 잡지를 후원하며 사람에 투자하는 사례들로 시민의 존경을 받고, 좋은 기업의 이미지가 환산되기를 꿈꾼다. 내 친구가, 우리가 아는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노숙의 삶을 살게 된다면? 이제 우리 사회가 내 사람들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할 차례다.

고통에 직면하는 자세와 그 순간을 극복할 힘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 그 위로의 상찬을 나누며 보다 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귀하의 참여로 지면이 소란해지길 꿈꾼다. 다가오는 봄, 무엇보다도, 바로 당신이 <낯선아침>과 만나길 꿈꾼다.

이민아 : 시인, 본지 편집위원, 前부경대 입학사정관, 백년어서원 <퍼블릭 큐브>에서 독서포럼을 기획, 운영함.

재능을 나누면 흥겨움이 세배

글_고윤정



필자가 재능나눔 음악회 사회를 잠시 끝내고 휴식을 취할 때다. 공연장 십터 귀퉁이에 음악회에 참여한 한 중년 남성이 포래의 무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신나네. 역시 문화생활을 하고 살아야 사람인게여”

12월 10일 15시, 범일동 가온아트홀에서 노숙인 150여분이 좌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부산지역 쪽방 상담소와 부산시립예술단노동조합간의 재능 나눔 공연이 이어졌다. 당초 노숙인 분들이 지루해 하시지는 않을까, 공연 예절을 지키시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잘한다, 좋다는 추임새가 여기저기에서 나왔고, 덩실 덩실 춤을 추시는 분도



계셨다. 사실 이번 행사는 부산진구 쪽방 상담소에 방문 해 양 기관 추진 사업을 협의 하다가 우연하게 기획되었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쪽방 상담소 아저씨들이 함께 하는 오카리나 모임이 있는데 꾸준히 이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매월 생일을 맞은 분을 위해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 생일잔치를 열어 주고 있다는 이야기에 불현듯 올해 재능기부를 약속해 주신 부산시립예술단노동조합 선생님들이 떠올랐다. 그래서 마련하게 된 노숙인 분들과 시립예술단 노동조합 간의 설레는 소개팅!! 함께 해서 더 배가 된 ‘달달한 무대’가 만들어졌다.

쪽방 상담소 실무자 분들은 행사 안내를, 시립예술단에서는 장구춤·산조·연극 공연 재능기부를, 가온아트홀 대표님은 흔쾌히 공간을 내 주면서 첫 만남의 삼각형이 그려졌다. 부산 문화나눔 사업명이 괜히 ‘달달한 별집’ 이겠는가. 좋은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간의 네트워크는 별꿀처럼 맛도 몸에도 좋다.

게다가 이번 음악회의 백미이자 하이라이트인 진구 쪽방 상담소의 오카리나 공연도 기대 이상으로 풍성했다. 행사 시작 2시간 전부터 도착한 오카리나 팀은 긴장한 탓에 추운 날씨에도 연신 손바닥 땀을 닦아 내며 에텔바이스와 문리버를 연습하고는 본 공연에 올라 가셨다. 자기소개를 해달라는 부탁에 쑥스럽다며 ‘차렷, 경례’ 인사로 공연을 시작하셨고, 몇 달간의 연습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노력이 깃든 연주를 들려 주셨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노숙을 한다고 하면 인내력이 희박하고 무절제해서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약기를 다루게 되는 것은 꽤나 고통스러운 인내가 필요하다. 애정 어린 손때와 땀이 베여야한다. 모가 나서도 안되며 서로의 호흡에 귀를 기울여야 하기에 단순한 호기심만으로는 연주가 힘들다. 그래서 오카리나 팀의 공연은 연주

의 수준을 떠나 수 곡을 연습하고 외운 노력에 쫓긴 감동이 들어 있다.

한 공연이 끝날 때 마다 열띤 박수가 이어졌다. 그리고 ‘홍’ 바이러스가 공연장 구석 구석 퍼져나갔다. 문화예술 활동을 함께 하며 느낀 홍은 다음의 단계를 거친다. 재밌다 → 즐겁다 → 해보고 싶다. 어깨가 들썩이는 공연에서 재밌다가 어깨를 들썩거리보기도 하고 그러다 반복되면 나도 배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전해진다. 이날로 예외 없이 ‘홍’ 바이러스가 만연했다. 손가락 탭 댄스를 연주하시기도 하였고, 음에 가사를 붙여 부르시는 분도 꽤 계셨다. 시립예술단노동조합 국장님은 “이렇게 공연 몰입이 좋은지 몰랐다”며 합창단을 같이 하나 만들어도 좋겠다고 웃으셨다.

돌이켜 보면 우리 민족은 참 홍이 많았다. 산골짜기부터 내려오는 민요 가락에 농번기 때 마다 부르는 노래, 산들바람 불면 어깨춤 들썩이며 계절을 맞이했다. 그러다가 근현대에 들어 획일적인 교육 환경과 경쟁에 치여 좀처럼 홍을 내기도, 틔다는 핀잔 대신 상대의 홍을 돋우어 주기도 어려워졌다. 어쩌면 공동체의 시작은 신명 나게 홍을 내고 홍을 돋우어 주는 것부터 시작이 아닌가 싶다.

동구 쪽방 상담소 실무자이며 낮선아침 편집위원인 이재안 선생님과 노숙인 분들께 기타를 가르치는 한 공익근무요원의 공연도 그렇다. 성악가가 꿈이었다는 이재안 선생님의 ‘낭만에 대하여’에 관객들은 앵콜로 응답했다. 좋은 잔치에 선뜻 내놓은 소중한 재능은 너와 나를 구분하기보다 함께 한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그리고 예술가와 시민간의 경계가 희미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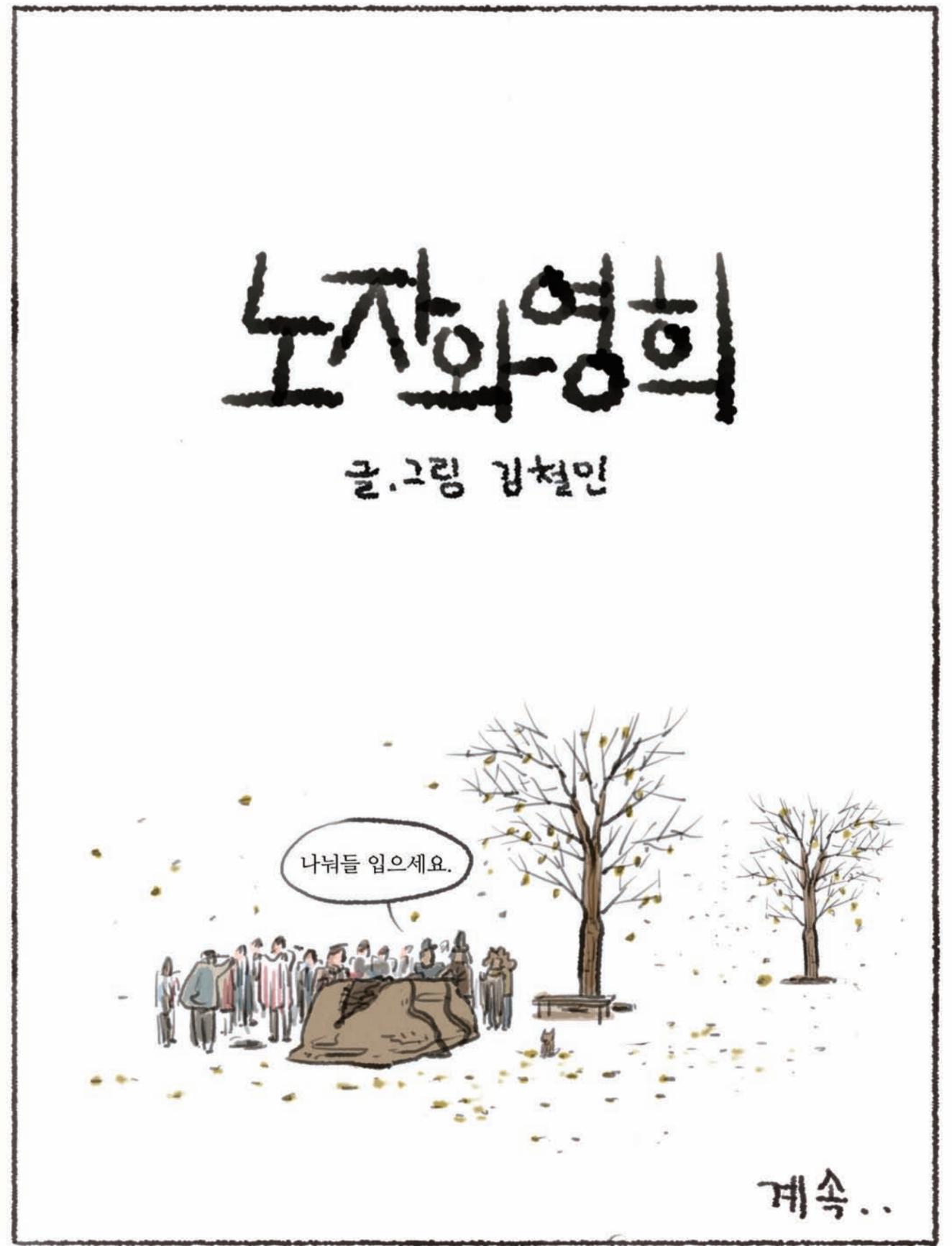
1시간 동안 이어진 달달한 무대 후 가온아트홀의 연극 관람이 이어졌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무대가 끝난 후 배우들과의 인사였다. “봉자 씨가 최고였어~”, “에고 다 행복해져서 좋아”, “잘 되어서 다행이야” 라며 배우 손을 성큼 잡으시며 위로의 말들을 건네셨다. 이게 바로 최고의 공연 예절이 아닌가.

깜짝 소개팅처럼 이루어진 쪽방 상담소와의 첫 번째 달달한 무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앞으로 제 2, 제 3의 달달한 무대가 이어질 것이다. 홍을 나누는 경험들이 다음에는 기타 모임으로 합창 모임으로 퍼져나갔으면 한다. 시립예술단 단원들의 사회적 기부를 통해 예술을 가까이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시민들은 예술에 한 걸음 더 가까워 질 것이다. 아, 벌써부터 다음 달달한 무대가 기대된다.



고윤정 : 부산문화재단 문화복지팀





노숙인 영상제작단

글_ 최정배



노숙인을 위한 미디어 강의를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받고 정말 고민이 되었다. 뜻 깊은 일이 될 거라는 기대와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기 때문이다.

부산문화재단 담당자와 강사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한 끝에 영상 문화 체험프로그램을 따라가며 영상제작단을 만들고 실제 영상작업까지 해보는 새로운 미디어 수업을 해보기로 결정했다. 다른 문화 교실에 비해 영상제작수업은 촬영시간과 장소를 조절해야하는 다소 복잡한 과정이 있어 사전 계획에서 많은 논의와 준비가 필요했다. 또한 수업을 진행하려 해도 강의실을 들을 사람을 모으는 일이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영상을 즐기는 것을 넘어 직접 제작을 하는 것은 노숙인들에게 부담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관심은 있지만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첫 강의는 공개로 진행해 사진찍기와 뉴스제작 등 실생활에 가장 가까운 내용으로 친숙하게 다가갔다.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는 영상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 다행스럽게도 6명으로 구성된 영상제작단이 만들어졌다.

중학생부터 일반 직장인들까지 다양한 영상제작 수업을 진행해왔지만 역시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은 그 눈높이를 맞추기가 어렵다. 특히 자신의 모습이 찍히거나 타인을 촬영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도 어려운 점이다. 방송용 비디오카메라가 고가장비라 여기고 혹시라도 고장을 내면 어쩌나 하며 조심스러워서 다가가지 못하는 분도 있고, 카메라 무게가 궁금했다면서 사소한 관심만 보이는 분들과 특수영상촬영에만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분들까지

다양한 느낌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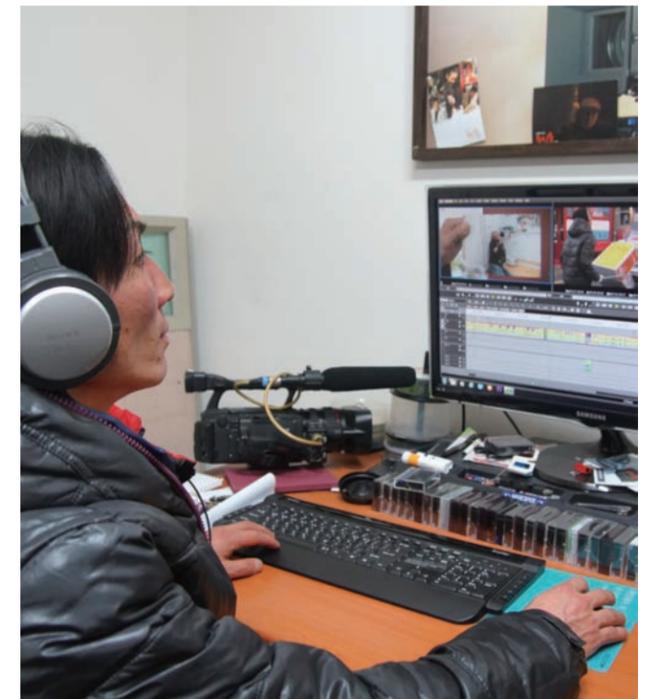
먼저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면서 카메라를 통해 찍고 찍히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부터 시작했다. 방송카메라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형 캠코드를 준비했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카메라에 따로 손잡이를 하나 더 부착해 안정된 자세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영상작업은 대부분 팀 작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제작단 내의 분위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 카메라를 들고 다 같이 어린이대공원으로 산책을 갔다. 야외 촬영의 주의점과 녹음요령을 배우는 목적도 있었지만 같이 걸으면서 제작단의 유대를 키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강의실의 답답한 공간에서 벗어난 제작팀은 마치 소풍 나온 듯 자연풍광을 즐기고 카메라 놀이에 흠뻑 빠져 들었다. 무거운 분위기를 풍기던 제작팀은 어느 새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동료로 촬영해보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도 유심히 듣기 시작했다. 실제 촬영을 아니지만 이미 영상작업은 이때 시작 되었다고 본다.

또 하루는 실내 촬영을 배울 겸 수강생 중 창식 씨의 초대를 받아 모두 그의 쪽방을 방문했다. 비슷한 처지에 살아가기 때문에 쪽방이라는 공간은 이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공감대와 알 수 없는 편안함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노숙이란 단어에서 유추해보면 자신만의 주거공간이 가지는 의미는 남다른 것이다. 대화 도중 비록 쪽방에 살고 있지만 사회적인 환경과 복지 정책의 한계에 대한 문제를 공유하고, 노숙인 스스로의 문제점까지 진지하게 각성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주어진 삶속에 최선을 다한다 해도 개인의 의지만으로 개선하기 힘든 안타까움도 느꼈다.

같이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수업이 더욱 활기를 띠었다. 영상 문화 체험의 일환으로 영화의 전당도 견학하고 부산의 '메이드 인 부산' 독립영화제에 참여하기도 했다. 과감하게 카메라를 들고 행사관계자와 인터뷰를 시도하는 등 점점 영상제작단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을 때는 지도하는 입장에서 무척 흐뭇했다.

각자가 만들고 싶은 영상물은 자연 다큐멘터리부터 아버지와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인간 드라마까지 다양했다. 공동 작업을 위한 작품을 골라야 했는데 작품 선정에 대한 논의는 꽤 치열했다. 촬영 일정과 제작조건을 고려해 김창식 씨의 일상과 살아온 이야기를 듣는 영상 자서전을 만들기로 했다. 작품이 정해지자 이번에는 작품 주제와 방향을 두고 다시 제작회의가 뜨거웠다. 그리고 대망에 첫 촬영을 나갔다. 부산 인창병원에서 병원을 다녀오는 창식 씨가 동료를 만나는 장면부터 찍었다. 촬영이 진행되면 누군가는 단역으로 출연하고 누군가는 제작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역할분담이 되었다. 카메라맨은 영상이 마음에 안 드는지 배우의 걷는 속도와 방향등을 지시하며 같은 장면을 여러 번 찍었다. 목소리가 날카로워 지기도 한다. 마음처럼 다른 사람이 움직여주지 않는 일을 서로 맞추어 가는 일 또한 영상제작의 큰 배움일 것이다. 어쩌면 영상물 제작은 이 강의에서 주목적은 아니다. 카메라 앞에서 뭔가 자신의 이야기를 해보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그것을 통해 닫고 살았던 마음을 열고 타인에게 귀 기울이는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 말하기는 쉽지 않았다.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하면서도 말은 되풀이되고 이야기는 뜻하지 않게 엉뚱하게 흘러가기도 한다. 말해 볼 기회가 자주 없어 사고하기와 말하기가 유기적으로 연결 되지 않기 때문이다. 카메라를 매개로 한 이런 소통방법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

창식 씨는 어린 시절과 가정불화, 각설이 분장을 하고 유랑단과 함께하던 시절, 암울했던 범죄 피해자 시절 등 가감 없이 자신을 드러



주었는데 인터뷰의 생명력은 참으로 대단했다. 정말 꾸며서 만들 수 없는 드라마틱한 삶 그 자체를 들려주었다. 그는 개인적으로도 한 번쯤 기록하고 싶어 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는 감동적인 순간이며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했다. 고통과 서러움은 느낄 새도 없이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어두웠던 자신의 과거를 열고 새로운 희망을 찾는 의미로 타이틀도 “내 겨울의 창을 열다”로 정했다. 자신을 위해, 또 고통 받는 많은 이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모습은 참으로 가슴 한 구석을 뭉클하게 했다. 일상에서 만나는 꽃들과 인형, 지나치는 개에게도 사랑한다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창식씨를 보며, 영상제작을 가르치는 것은 나였지만 삶을 배운 것 또한 나라는 생각을 한다.

인터뷰 중 창식 씨는 자신은 많은 도움을 받고 살고 있지만 돈보다도 선물보다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고마울 때가 있다고 했다. 타인과의 소통을 여는 것이 이 미디어 수업의 목적이었다면 이 수업이 창식 씨에게 또 같이 한 영상제작단에게,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관객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다가갈 수 있기를 빌어본다.

최정배 : 시나리오작가, 현 원도심창작공간 <또따또가> 입주작가, 시나리오_연극: 증인들 시즌2, 영화 : 역회전, 껌

영상미디어 교육을 받은 후에

글_ 김성태



부산 동구의 쪽방에서 주선, 준비한 영상미디어 교육을 받았다. 6주에 걸친 영상미디어 제작과 Message 정제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에 대한 후기를 정리해 본다.

1. 부산의 관련 인프라와 지역특성을 잘 활용하면 자영업으로써 부가가치가 높은 한 장르 일 수도 있겠다 싶은 기대가 있었다. 두 분의 강사와 한분의 Staff가 준비한 계획과 구체적 내용들은 참으로 성실한 것들이어서 감사했다. 이론 교육과 현장실습 및 완성작품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확인으로 교육은 전개되었다.

2. 영상 확인 및 관련기기를 신기해하는 교육생인 우리들의 모습은 교육과정의 단락마다 더해지는 희망과 자존감이 고양되는 것이었으리라. 다른 한편으론 작품주제와 촬영결과물의 간극마저 희망과 긍정의 발로이던 것은, 잊고 살았던 푸른 희망에 더해지는 끝없는 노력의 각오를 의미했으리라.

3. 삶에 대한 잡초의 근성을 지켜보며 문득 잡초인 스스로를 새삼 또 자각한다.

4. 조건반사와 무조건 반사의 차이를 넘어서고 연출과 느낌의 일체화를 끝없이 도모할 때, 아름답고 정확한 영상미디어를 소유하고 나눌 수 있으리니 이념까지 무시할 수 있는 이 아름답고 막강한 수단을 잘 활용하자는 생각도 들어오던 수강시간이기도 했다.

5. 역설적으로, 얼룩지고 어두운 어떤 모습과 현상을 긍정과 낙관을 재생산해내는 세태의 한켠에서 건강한 인생이 건강한 영상을 만들어 내더라는 말씀을 전하며 영상미디어학과 관련된 내용을 두서없이 살펴보았다.

두분의 강사와 동구 쪽방 직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영상미디어 교육 후기의 종장을 접는다.

김성태 : 절망적인 생활과 아들과의 생이별로 인한 아픔을 치유하시고 쪽방 주민들과 영상제작단의 교육에 참석하시어 행복한 시간을 계속 만들어가고자 한다. 만성질환으로 기초생활수급을 받으시지만 노동에 대한 갈망은 여전하다.



노숙자 소녀가 하버드대에 입학



입학 | 최성환 28x9x63 | 혼합재료

리즈 머리는 1980년 뉴욕 빈민가에서 태어났다. 마약 중독자인 부모 사이에서 자란 그녀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어머니가 에이즈에 걸리고 아버지가 보호시설로 보내지면서 열다섯 살에 거리에 나왔게 됐다. 그녀는 친구 집을 전전하거나 노숙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다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로 마음먹었다. 탈출구는 대안학교 입학이었다. 그녀는 옷가지와 세면도구, 책들이 든 커다란 가방을 들고 친구 집을 전전했다. 친구 부모가 깨기 전에 밖으로 나가야 했기 때문에 주머니에 작은 진동식 자명종을 가지고 다녔다. 의지가 약해질 때마다 장애물을 '하나씩 넘어 결승점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렇게 순간순간 어려움을 이겨냈다. 마침내 고교 과정을 2년 만에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뒤 '뉴욕타임스' 장학금을 받고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다. 2009년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도록 영감을 주는 워크숍을 열고 있다.

-리즈 머리, 『길 위에서 하버드까지』

작품의도

가방은 누군가에겐 소비의 대상이고 과시의 대상이 되며 또는 단순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희망을 담은 보물 상자가 되기도 한다. 가방의 외형이 어떻든 무엇으로 만들어졌든 그 목적은 분명하다. 바로 그 무엇을 담는다는 것이다. 한편, 우린 담는다는 것에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보편적으로 물성의 무엇을 담는다는 것 외에도 그 이상적 표현을 가지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보면, 담는다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원초적인 욕망이 되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가방은 시공을 넘어선 세상의 어떤 것을 담아 무언가를 소비(목적성의 용도에 의한 사용도 소비라고 할 때)하거나 하는 그 효용을 넘어선 역할을 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가방은 다양한 함축적 의미를 담은 표상이 될 수 있다. 작가는 그러한 가방의 무한 의미의 연속성에 주목해 본다.

부산발전연구원 이언오 원장님께서 청년작가 그룹 아코아 팀과 같이 기획한 『책을 그리다』가 책으로 나왔다. 원장님께서 추천한 100여 권의 책 소개에 35명의 작가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작품을 만들었다. 그 작품들은 책의 출간과 함께 부산지역 역사 안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노숙잡지에 실어도 되냐는 부탁에 흔쾌히 수락해 주신 이언오 원장님과 아코아 팀께 감사드립니다.(P 2, P 34)

미안해, 루시

글_ 송진희



영화 한편이 한 사람에게 좋은 거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인공의 행동이 위안을 주고, 영화 속 장면들을 떠올려서 힘이 난다면,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응원과 격려가 되어 준다면 영화는 단순히 눈요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늘 옆에 동행하는 소중한 '벗'의 역할을 해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청탁을 받은 후 <낮선아침>의 영화코너가 영화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뽐내는 곳이 아니라, 영화를 통해 우리들의 일상을 되비쳐보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통로라는 점을 우선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잡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좋은 거름이 될 수

있는 좋은 영화 한편을 소개할 수 있다면 참 뿌듯하고 기쁠 것 같다. 잡지 <낮선아침>의 마음을 받아 안으며 이 글 또한 일상을 동행하는 벗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열어 본다.

영화 '웬디와 루시' 그 제목이 전하는 메시지

지금부터 이야기할 영화의 제목은 '웬디와 루시'이다. 이 영화는 사회의 시스템에 의해 바깥으로 내몰리는 여성을 조용하고 담담하게 그리고 있다. 개봉관에서 걸리지도 못했던 작은 영화라 기억하는 이들이 드물겠지만 숨겨진 명작이라고 말하고 싶다.

'텔마와 루이스', '줄 앤 짐'과 같은 유명한 영화들을 보면 등장인물의 이름이 영화의 제목으로 사용되곤 한다. 이들 영화들은 주로 동성과 이성 간의 우정과 사랑을 그린 작품들로 관객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이런 제목이 주는 인상 때문에 영화 '웬디와 루시'를 또한 두 등장인물간의 관계를 다룬 영화일 것이라고 짐작하게 되는 것 같다.

하지만 '웬디와 루시'는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가 아니라 '웬디'라는 20대 여성과 그녀의 애완견 '루시'와 함께 나눈 한 시절을 담고 있다. 특별할 것이 없는 관계 설정이라고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바로 이 제목에서부터 영

화전편을 관통하는 주제의식이 흐르고 있다. 그리고 이 제목은 이 영화가 서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나침반이기도 하다.

영화는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에서는 이미 훼손되어서 들여다 볼 수 없는 곳,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고 아주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곳, 그래서 다시 세심하게 들여다보아야만 겨우 볼 수 있는 어느 가장자리, 삶의 무게와 고단함을 감싸 안으며 견디고 있지만 끝내 아무도 모르는 웬디의 발뒷꿈치와 같은 곳에 기꺼이 서 있고자 한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주는 작은 반전의 여운을 조금 더 음미해보면 좋겠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홈리스의 현실을 드러내는 섬세한 영화

가장자리에 위치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소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영화들은 사회의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잔인한 장면과 비극적인 결말을 통해 관객에게 어필하는 방식을 더 선호하는 듯하다. 그 영화들이 직설적이고 자극적인 방식으로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문제를 보여준다면 '웬디와 루시'는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한 개인에게 구조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회의 질서라는 이름의 시스템과 그 시스템이 일상에서 만나는 이웃들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진실을 묵묵하게 담고 있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미국 사회에서는 집이 없는 부랑자를 가리키는 말로 홈리스(homeless)라는 말을 쓴다. 영화는 홈리스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나 홈리스로 내몰릴 수 있는 현실을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웬디와 루시'가 사회의 시스템을 고발하는 영화가 아니라 삶의 가장자리를 드러내는 영화일 수밖에 없는 것은 불의에 맞서 싸우는 똑똑한 주인공의 영화가 아니라 위기의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현실의 조건 너머로만 볼 수 있는

소중함을 찾아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의 과정은 영화가 지닌 리듬과 속도로 우리에게 전해온다.

일상의 속도와 닮은 영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다면

영화를 10분만 보더라도 '웬디와 루시'는 비슷한 장르의 다른 영화에 비해 속도가 다른 영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영화가 가진 리듬을 살펴보면 느리기도 하고, 중간에 정체되기도 하고, 불필요한 장면이 들어갔다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영화는 일반적인 할리우드 드라마 영화를 볼 때 느끼는 속도감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 상업영화의 속도로는 어색하지만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그 속도가 우리들 일상의 속도와 닮아있다는 것을 발



견할 수 있다.

영화의 속도가 어색하게 다가오는 것은 이 영화를 찍은 여성감독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지부진한 삶의 속도로 '웬디와 루시'의 삶을 함께 견디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삶을 견디고 버티는 순간순간들의 과정을 지켜보게 하는 영화의 느린 속도가 결국엔 우리들이 일상에서 놓쳐왔던 세심한 부분들을 건드린다. 관객들이 그 세심함을 보고 느끼기 위해서는 영화가 요청하는 삶의 속도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영화가 지닌 속도를 우리가 맞추어 갈 때 '웬디와 루시'는 우리들 일상과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다가와 마침내 삶을 이야기하는 순간들을 펼쳐낼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들을 함께 공감하고, 고민하고, 나눌 수 있다면 삶을 나누는 것과 같아 질 것이다.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는 것이 곧 삶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일 수 있다면 '웬디와 루시'의 한 장면, 한 장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나치거나 잊었던 우리들 일상의

속도에 대해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을 마련해준다. 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동안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세심한 시선이 어느새 드러나서 아직 영화를 보지 못한 이들에게도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1. 웬디, 여기까지야.

20대 여성 웬디는 오래된 고물차를 끌고 자신의 애완견 루시와 함께 알래스카의 생선 통조림 공장으로 일 자리를 구하기 위해 떠나는 길이다. 알래스카는 미국의 북아메리카 북서쪽 끝에 있는 위치하고 있는 '거대한 땅'을 의미하는 인디언 말이라고 한다. 이 거대한 미지의 땅을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삼기위해 그 곳을 향해 떠나는 웬디의 표정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듯하다. 영화 내내 울지도, 웃지도, 그렇다고 무표정하지도 않은 웬디의 알 수 없는 표정에서 알래스카라는 미지의 세계를 향한 여행은 단순히 일자리를 얻기 위해 도착해야 하는 목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기약할 수 없는 인

생과, 그럼에도 그 전부를 내 던져야 버틸 수 있는 세상의 슬픔과,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 낯설고도 익숙한 오늘 하루를 말하고 있다.

알래스카로 가기 위해 변두리 시골 마을들을 경유하며 매일 낯선 곳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잠을 청해야하는 웬디와 루시에게 유일한 보금자리이자 집은 오래된 자동차 안이다. 변두리 마을의 상가 실외 주차장에 홀로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에 불이 꺼지면 그들의 고단했던 하루도 마감된다. 상가의 실외 주차장이 유일하게 허락된 공간이지만 아침이 밝아오면 이 공간마저 사용할 수 없는 금지구역이 된다. 그리고 유일한 보금자리였던 자동차가 갑작스럽게 고장이 나면서 웬디와 루시는 발길을 멈추고 자동차 바깥으로 나와야 하는 동시에 낯선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

마을의 정비소가 문을 열지 않아 차를 바로 고칠 수 없게 된 웬디는 알래스카로 가는 길까지 변변치 않은 자금을 마련해볼 요량으로 루시와 함께 마을의 병이나 캔을 주워서 팔아보려

시도해보지만, 캔을 팔기 위해 도착한 곳에는 마을의 오래된 주민들(40대 후반의 남성과 장애인들)이 이미 일을 도맡고 있었기에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 점심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간 마트에는 다양한 먹거리들이 빼곡하게 진열되어 있는데 비해 웬디의 몸은 이미 활기를 잃어 보인다. 싱싱하고 푸른 과일코너에 멈춰서 사과를 손으로 집어 올려보지만 마트 점원과 눈이 마주치자 다시 무기력하게 제자리에 놓아두고 만다. 그러던 웬디는 어떤 생각인지 식료품 몇 개를 훔친다.

그녀는 마트 밖으로 나가려다 곧바로 점원에게 붙잡힌다. 웬디는 수차례 자신의 실수를 사과 해보지만 '규칙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점원의 말에 경찰서에 넘겨지게 된다. 식료품을 훔쳤다는 이유로, 하루 반나절이 넘는 시간동안 경찰서에 감금되어 사진을 찍히고, 지문인식기에 열손가락의 지문을 복사하고, 50달러의 벌금을 내야하는 절차 앞에서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영화는 잘 보여주고 있다. 주소, 전화번호, 직업, 화폐. 무엇보다 선명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이 없이 내 던져진 자동차(집) 바깥의 세상에서 웬디가 마



주한 낯선 마을 사람들의 얼굴과 말은 오히려 선명하고 간결하다.

“개 먹이도 못사는 사람이 개를 키우면 안되죠. 본보기를 보여야 돼요. 맞죠? 규칙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해요”

“어차피 주소가 없으면 취직도 못해요. 주소가 없으면 주소를 얻을수도 없지. 일자리가 없으면 취직도 못해. 다 정해져 있어”

“하지만 문제는 저 차가 저기를 차지하고 있어서 어떻게 할 건지 알아 줘 줘. 견인비 30달러만 내고 폐차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깐”

- 영화 웬디와 루시 대사 중

영화에서 웬디가 만나는 마을 주

민들의 선명한 얼굴과 말은 시스템이 사회의 질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시스템에 순응하다 동화되어 시스템의 몸이 되어 서로를 대하는 이 시대의 남루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녀가 왜 물건을 훔치게 되었는가를 물어오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저 여기 이상은 넘어오면 안된다고, 모든 것은 다 정해져 있다고 같은 말을 반복 할 뿐이다.

2. 나무 막대기 하나에 새겨진 우정

경찰서를 겨우 빠져 나온 웬디는 마트 앞에 묶어두었던 루시를 찾으러 걸음을 분주히 움직인다. 하지만 웬디가 마트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루시가 사라진 이후이다. 마트의 점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지만 건성



으로 대답할 뿐 웬디의 일에 여전히 무관심한 표정이다. 유일한 보금자리였던 자동차도 고장이 나버리고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였던 루시마저 잃어버린 웬디의 목소리는 긴박하고 답답한 마음을 담아 '루시'를 힘껏 부르며 마을의 어귀들을 헤맨다. 결국 다시 고장이 난 자동차로 돌아온 웬디와 이를 지켜본 마을 주차장의 경비 할아버지와 의 짧고 간결한 대화는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낯선 타인과의 덤

덤한 우정의 담긴 장면이다.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유기견 센터에 연락을 취하고 마을 곳곳에 루시를 찾는 전단을 붙이며 동분서주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빨라진다. 하루 종일 루시를 찾았지만 특별한 소득 없이 하루를 보내고 마을 근처 산속에 간소한 잠자리를 만들어 잠을 청해보지만 이 자리마저 허락되지 않은 듯, 한밤중 술에 취한 남자의 술주정을 들으며 죽은 듯 누워 있다가 남

자가 떠난 후 겁에 질려 산 속을 빠져 나온다. 뒤늦게 자신의 낡은 자동차로 다시 돌아가려 해보지만 자동차는 이미 견인되어 버렸다. 그저 잠시 멈춰선 마을에서 끊임없이 아웃당하며 결국 마을 어떤 곳에서도 몸을 누일 수 없는 웬디는 뜬눈으로 낯선 아침을 맞이한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루시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웬디는 마을 주민의 집 정원 안에 있는 루시를 발견한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웬디. 그 말을 들어주는 루시의 얼굴을 영화는 유일하게 카메라 가까이 담는다. 웬디의 심란하고 고단한 표정이 무장해제되는 순간은 바로 루시를 부를 때, 함께 있을 때임을 알게 된다.

바로 이때 웬디와 루시 그들을 이어주는 것은 작은 나무 막대기 하나이다. 나무 막대기 하나는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금지구역도 없으며 누구의 소유도 아니기에 어떤 제제도 없다. 오로지 두 사람이 나무 막대기 하나에 새겨진 우정의 크기만 있을 뿐이다. 나무 막대기 하나를 웬디가 던지면 루시가 곧장 달려가 물어온다. 그렇게 수없이 반복하면, 그걸로 그들은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듯하다. 내물고 내물더라도 나무 막대기 하나 만큼의 행복마저 웬디와



루시에게서 빼앗아가지 말기를.

3. 웬디와 함께 걸을 때 말을 건네는 영화

'웬디와 루시'는 영화의 늘어지는 리듬 때문에 관객들이 놓치게 되는 장면이 많은 영화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독립영화들처럼 대사 없이, 음악 없이 건조하고 담담하게 그리는 방식으로 보아도 '웬디와 루시'는 그렇게 기억될 만한 영화는 아닐 것이다. 이 영화는 웬디와 루시, 두 사람의 호흡과 같은 속도를 낼 때 무언가를 던지시 던져주는 영화이다. 그 호흡을 요청하는 이 영화의 감독인 켈리레이차트는 독립영화계에서 여성 영화의 관점을 가진 영화들을 꾸준히 만들고 있다. 웬디를 연기한 미셸 윌리엄스 역시 여배우의 화려함을 벗어 던지고 일상인의 몸과 얼굴을 자연스

럽게 드러내는 배우로 유명하다. 이 영화의 감독과 배우가 가지고 있는 여성적인 호흡은 영화에 등장하는 낯선 마을의 주민들처럼 재촉하지 않는다. 이 여성들은 웬디의 표정하나, 손길하나, 발걸음하나를 의지해 함께 걸어 나간다. '웬디와 루시'처럼 2.30대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사회적 부적응자, 무능력자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들을 그리는 영화는 의외로 많지 않다. 보통 흡리스를 다룬 영화들은 남성중심의 서사가 전개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물리적인 폭력이 앞서 영화가 관객을 압도하는 경우가 많다. 설사 영화에 여성이 등장한다고 해도 대부분 여성의 힘든 상황과 사연에 집중하여 극대화시키기에 바쁘다. 한국영화에서도 대부분 여성 부랑자들을 다룰 때 동네의 미친여자 표상하는 차원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웬디와 루시'는 웬디의 생활이 거의 드러나지 않고 오로지 웬디가 놓여져 있는 상황을 보여주며 웬디의 모습을 섬세하게 다룰 뿐이다. 그런 영화적인 배려가 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에 묻어있다.

이 영화는 세심하게 들여다보아야만 마침내 보이는 영화인 동시에 우리의 삶과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이들의 삶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기를 요청하는 중요한 영화이다. 이 영화에서 웬디와 루시가 나무 막대기 하나에 우정을 새기듯, 우리가 살아가는 삶속에서 작은 우정의 거리가 허락될 수 있기를. 이 영화를 되새기며 내가 얻은 배움이 낯선아침을 맞이하는 모두에게 나무 막대기 하나만큼의 우정이 될 수 있기를.

송진희 : 생활예술모임 <곳간>의 공동대표, 생활비디오채널 작가

이상한 한국 문화

글_ 찐티하인 그림_ 김철민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에 이상하고 신기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하게 된 문화도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이해가 잘 가지않고 적응이 잘 되지않는 문화도 있다.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을 처음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할 경우에, 보통 자신의 이름이나 나이, 직업등을 소개한 후에 대화를 시작한다.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상대방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도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한국문화를 처음 접했을 때 충격을 받았다. 저의 경험담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어떤 한국사람이 “잠깐, 이름이 뭐예요, 어떤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라고 물었다. 옆에 있는 한국친구도 “이름부터 이야기하세요”라고 말했다. 그 이후에도 그런 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곤란한 상황을 몇 번 겪었는데, ‘이것은 한국문화구나’

라고 생각되어서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연세있으신 부모님들이 왜 자식들과 함께 살지 않고 따로 사시면서 힘들게 돈을 벌어야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길가에서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힘든 일은 하는 것을 볼 때마다 한국의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이 정말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베트남에서는 보통 자식들이 결혼을 한 후에도 북쪽에서는 장남과 부모님이 같이 살고, 남쪽에서는 막내와 부모님이 같이 산다. 자식들은 부모님을 돌볼 수 있고, 부모님들은 손자들을 돌봐줄 수 있기때문에 함께 살지. 대가족이 함께 살다 보면 불편한 점이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부모님을 돌보는 것은 자식들의 책임이지. 부모님들 또한 자식들과 함께 즐겁게 살고 싶기도 한다. 베트남에 나이가 많이 든 부모님이 자식들과 떨어져면서 홀로 살고 싶은 부모님이 거의 없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 급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식사속도가 너무 빠른 것은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다. 음식을 너무 급하게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은데 한국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한국 사



■ 한국인의 대표적 발라발라 습관들



랍과 같이 식사를 할 때마다 정말 곤란하다. 함께 식사한 한국 사람은 저보다 빨리 식사를 끝나기 때문에 제가 다 먹지 않았어도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상황도 있고, 속도를 맞추어서 빨리 먹을 때에는 배탈이 나기도 한다. 그리고 더운 날 더 뜨거운 음식은 먹는 것을 '이열치열'이라고 하는데, 이것또한 이해할 수 없는 한국의 음식문화로 여긴 것이다.

더불어서 한국사람들은 남자여자 구분없이 술과 담배를 많이 한다. 베트남에서는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여자는 나쁜 여자라고 여긴다. 저도 본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여자가 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생각이 한국여자들과 안 맞다. 반면에, 많은 한국 여자들이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를 많이 피우더라도 대부분 성격이 아주 좋고 공부도 잘하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때까지는 한국여자친구를 사귄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다.

관광지를 여행할 때 치마나 원피스같이 잘 차려진 옷을 입고 하이힐을 신고거기에다 양산까지 들고 여행하는 여자들은 대부분 한국 여자들이다. 이것은 베트남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여행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인 것 같다. 베트남 사람들은 여행을 할 때 자신이 보고 경험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은 사진을 찍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고 자신들이 어떻게 보이느지를 더 중시하는 것 같다.

한국에서 사귀는 사람들이 같은 반지를 끼는 것을 매우 자주 볼 수 있다. 베트남에서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커플링 (couple ring)이라고 부른다. 커플링 역시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단어다. 반지는 매우 진지하고 큰 약속(commitment)이기 때문에 많은 남자들이 '내 인생에서 반지는 오직 결혼할 때만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물론 여자들은 의미가 없는 예쁜 반지를 낀다.

베트남에서 커플링을 낀다면 주위사람들이 그사람은 결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다. 베트남과 달리 한국에서는 반지를 낀 사람은 결혼을 안 한 사람이고 반지를 안 낀 사람은 결혼한 사람인 것이 재미있다. 한국에서 커플링은 중요하기 때문에 끼지만, 정작 결혼반지는 안 끼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베트남과 매우 다르다.

한국에서는 베트남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색깔의 강아지들을 볼수 있다. 분홍색, 노란색, 파란 색...등등

한국에서는 강아지의 털 염색이 보편적인 것 같다. 베트남사람들은 강아지가 자기털색깔이 아닌 다른 색깔을 왜 가져야하는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우리는 강아지들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많은 베트남 남자들은 분홍색을 무서워하는 편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gay의 색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대부분의 베트남 남자들은 자신들이 gay처럼 보일까봐 정말 정말 무서워하다.) 그래서 베트남 남자들이 한국에서 분홍색



우리 친구 사진이다. 사진지 1000일 되었을 때 반지 직접 만들고 같이 낀다.



우리 한국 친구와 강아지



털 색깔을 가진 남자 개를 볼 때 <불쌍해...>라고 농담을 한다. 한국에서는 남자 개에게 여자 옷을 입히거나 리본을 입히거나 하는 경우 역시 많은 것 같다. 개 뿐만 아니라 남자 아이에게 여자 옷을 입히는 경우 역시 아주 많이 볼 수 있다. 우리 베트남 사람들은 그것이 매우 이상하고 신기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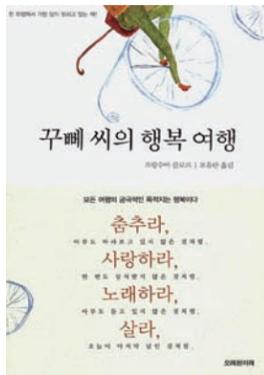
다문화사회에서 이렇게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서 재미있다. 글로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타국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에서 잘 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썬티하인 : 베트남에서 온 동의대 국제관광경영학과 4학년 학생

당신에게 행복은 어떤 것인가요

- 『꾸삐씨의 행복여행』 프랑수아 틀로르 지음. 오유란 옮김. 오래된 미래. 2004

글_ 정영민



정말 행복이란 건 어떤 걸까요? 누군가 당신에게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다' '아니다' 명료하게 답할 수 있을까요? 전 웬지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불행하기 때문이냐구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 지금 이대로도 참 좋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대부분의 것들이 편하게 다가오고 조금씩도 나아져요. 그러면 행복한 것이지 않느냐구요? 맞아요. 어찌보면 지금 전 행복하지요. 아마 오늘보다 다가올 내일들이 더 행복하겠지요.

근데 사람들은 제게 늘 안타깝대요. 몸이 불편한 것도 안타깝고, 빨리 못 걷는 것도 안타깝고, 똑똑한데 사회적 제약이 너무 많아서 넘어야 할 벽이 산더미인 것도 안타깝대요. 전 하나도 안타까울 일들이 없는데 말이죠. 어제보다 오늘 더 넘어야 할 벽이 하나 줄어들었고, 제 삶에도 이제 익숙해질 만큼 익숙해졌으니 이제 전 다 괜찮아요. 그리고 언젠간 진짜 진짜로 좋아질지도 몰라요.

당신은 어때요? 가끔 노숙을 하는 당신들을 보며 엉뚱한 생각을 종종해요. 당신들이 지금 모두 불행하진 않을 거라고, 어찌보면 당신들 가운데 노숙을 하고서야 비로소 행복을 경험한 이들이 더러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제가 너무 천진난만한 생각을 한 건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에 당신에게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지금 당신은 당신만이 걸을 수 있는 특별한 길을 걷고 있는 중'이라고 말이에요. 그 길에서 당신은 그 이전에 느끼지 못한 행복을 발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일상이라는 것 참 짝박하잖아요. 일을 하는 것도, 늘 생활에 쫓기면서도 돈을 벌어야만 삶이 어떤 형태로든 굴러가는 상황들도 짜증나잖아요. 정말로 뭐 하려고 사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게 대한민국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되어버렸잖아요. 당신도 그렇게 살다가 거리로 나오게 되었잖아요.

근데요,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거나 유명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해지려고 살고, 행복을 위해서 살아요. 『꾸삐씨의 행복 여행』은 유럽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책이래요, 그렇다고 작가가 유명하거나 책에 아주 중요한 사상이 실린 것도 아니에요. 그저 행복해지고 싶다는 사람들의 열망이 이 책을 유명하게 만들었죠. 전 그래도 이 책을 좋은 책이라고 말할래요. 왜냐하면 말이죠. 여기엔 꾸삐라는 정신과

의사가 나오는데, 꾸삐는 어느 날 선생님에게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환자의 충고를 받아들여 진료실 문을 닫아요. 그리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환자와 그들을 완전히 치료하지 못하는 그 자신을 위한 행복여행을 떠나요. 여행 중에 꾸삐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행복한지를 물어요.

'당신은 행복한가요?' 혹은 '당신에게 행복은 어떤 건가요?' 라고 묻는 방식들 사이에서 꾸삐 스스로 행복해지는 과정들이 좋았어요. 행복은 가끔씩 물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얼마나 값진 순간들을 살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행복은 위대하지도 엄청나지도 않아요. 정말로 사소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행복하다는 걸 몰라요.

꾸삐는 결코 특별한 사람을 만나 행복을 발견한 것이 아니에요. 어쩔 당시이나 나를 만났대도 꾸삐는 행복을 발견했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아마 당신은 오늘 누군가의 호의로 목욕도 하고 맛난 음식도 먹고 따뜻한 방에서 하룻밤을 묵는다면, 그게 아주 큰 행복으로 다가오겠죠? 왜냐하면 늘 그것들을 걱정하며 살았잖아요. 거리에서 잠든 이후로 말이죠, 행복은 그렇게 사소하고 찰나적이에요, 아주 크고 대단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늘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들 크고 대단한 것에 목숨 걸잖아요. 아마 노숙하기 이전에 당신도, 언제나 가난했던 나도 멋진 한 방이 최고의 행복인 줄 알았을 거잖아요. 아마 우리가 그 멋진 한 방을 설령 이뤄냈다면 행복했을까요? 전 아닐 것 같아요,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지켜야 하잖아요. 이젠, 무엇을 지킨다는 건 힘들고 귀찮잖아요, 근데 행복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것 아닐까요?

문득 당신들에게 행복에 대해서 말한다는 게 웃긴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당신이 지금 행복한지, 불행한지, 난 잘 몰라요. 근데 당신한테 '지금도 나쁘지 않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함께 지내자.' 라고 말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래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노숙을 한다고 해서 당신 삶이 완전히 멈춘 건 아니잖아요. 잠시 일시정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엔 일시정지가 필요해요.

어찌보면 당신도 지금 행복여행 중 일테지요. 이전에 경험하거나 생각해보지 못한 삶 속에서 사소하고 귀한 행복들을 하나, 둘 찾아가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럼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까요?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요?', '당신에게 행복은 어떤 것인가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행복하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목표로 삼으면서 지금 이 순간 행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는다는 겁니다.”

정영민 : 삶을 꿈꾸고 삶을 '제대로' 펼치려고 최근, 생활전선으로 뛰어든 여자. 여전히 책에, 사물에 더 집중하고 있다.

우리를 부르는 이름들

글_ 김선우

창밖으로 내리비치는 햇볕으로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을 맞이하는 이들에게, ‘낮선 아침’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익숙지 않은 단어일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빠르게 대체되는 이 도시에 ‘낮설다’라는 두루뭉술한 반응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익숙한 표지들로 뒤바뀌어 더 이상 낮설지 않은 도시의 풍경으로 포개어진다. 도시의 풍경을 형성하는 것은 단지 새로운 건물이나 조경을 위해 설치된 수목, 사물들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도시를 하나의 경치로 볼 수 있는 시선의 특권이란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삶들을 추상화한 결과이기 때문에,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익숙한 풍경으로 대체된다는 것은 문제적인 일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낮선아침>에서 다가가고자 하는 노상생활자들에 관한 이야기는 이러한 풍경을 헤집고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를 만나고자 하는 시도로 읽히기도 한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 중에 주목해서 보았던 점이 몇 가지가 있다. 먼저 ‘노숙인’을 달리 부를 수 있는 이름을 공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호마다 필자들이 각자 기획이 상이한 지면 위에서 공유하고 있는 문제의식이 있다면, 바로 이들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아닐까 싶다. 이름을 달리 부른다는 것은 단지 정치적인 올바름이나 도덕적인 검열 속에서 이뤄지는 시도가 아니다. ‘노숙인’이라는 명명이 노숙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노숙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띤 채 말해진 것이라면, 그들을 부르기 위한 ‘다른 이름’을 고민한다는 것은 해석의 권리를 당사자들의 몫으로 되돌려주기 위한 시도이기도 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야숙자’ 혹은 ‘노상생활자’·‘주소부정자’라는 말이 쓰이기도 하는데, 이 중에서 나는 ‘노상생활자’라는 말 속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과 이름이 불리는 사람 사이의 평등한 시선을 발견해본다. ‘노숙인’이라는 말에는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이라는 의미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생활자’라는 말로 인해 거처가 없는 이들은 오히려 이 모든 거리가 그들의 주소가 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역설하는 듯하다. 게다가 ‘생활한다는 것’은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생활이란 하루 한 끼를 어떻게 채우고 잠들 것인지를 고민하는 영역이기도 하지만, 쉼터에 있는 노숙인과 거리에 있는 사람, 지금은 쪽방이나 달 셋방에 거주하고 있지만 언제 다시 거리로 나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모두의 ‘생활’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들을 통칭해 부를 수 있는 하나의 이름을 찾는 것이 성급한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가 이 도시의 거리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고안된 상호적인 이름의 목록들을 늘려갈 수 있기를 바란다.

4호 <함께 걷는다는 것>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여러 필자들은 노상생활자들의 정치 없이 떠돌아다니는 발걸음에서 수평적이고 대등한 이름을 고안해낸 바가 있다. ‘도시유목민’(김윤환), ‘유민’(이동찬), ‘떠돌이 여행자’(김희진)라는 말은 단지 지금 ‘노숙인’이라고 통칭되는 이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다. ‘도시유목민’이나 ‘떠돌이 여행자’라는 이름은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만들고 희망하는 ‘삶의 방식’에 가까운 이름들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행과 유목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이 왜 이토록 상이할 수밖에 없는지 또한 고민해볼 문제일 것이다.

그들을 다르게 부를 수 있는 ‘이름’에 대한 고민에 이어서 흥미로웠던 기사는 매달마다 거리에서 벌어지는 ‘미니 반짝 베품시장’과 노숙인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행사, 게다가 편집인들의 1일 노숙체험과 같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글들이었다. 특히 5호의 노숙체험기인 <한 여름 밤 이야기>는 시간대별로 소상하게 노상생활자의 하루를 알리는 형식으로 시작된다. 낮 시간대에 부산역을 지나다니는 이들에게 노상생활자들이 도시의 이방인 같은 존재들이라면, 오후 11시부터 동이 틀 때까지 모여서 하루를 보낸 편집위원들의 체험수기는 도리어 편집위원들의 존재가 낮설고 경계해야 할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듯하다.

매일 밤 그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노상생활자들에게 편집위원들은 마치 초대하지 않은 손님으로 생각되지 않았을까? 그들은 이런 손님들을 어떻게 이름 지어 부를지 궁금하기도 하였다. 그렇다. 누군가에게 불러질 ‘이름’이 필요한 것은 비단 노상생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낮선 타인에 대한 경계와 호기심, 긴장어린 만남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부를 이름이 필요하다.

소박하지만 고유한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김비는 <낮선아침>의 4호를 알리는 글을 썼다. 언제나 일상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조금씩 고정되어 녹이 슨 생각을 전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김비의 글이 반가웠다. 그녀는 익숙하거나 낮선 아침을 맞이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안부를 건넨다. “괜찮다, 아침이 온 것뿐이다”. 하나의 이름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그/녀의 특정한 나이, 성별, 모습이 떠오르는 것을 경계하자. 우리들이 비로소 만났을 때, 이러한 인사로부터 우리들의 고유한 이름을 발명해내기 위한 이야기를 시작해보아도 좋겠다.

김선우 : 부산의 다양한 공간들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 어울리면서 여성으로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글을 쓰고 있다.

마음을 나누는 시장

글_ 김경화, 사진_ 김병국

‘미니 반짝 벼룩시장’은 그 이름처럼 한 달에 한번, 그것도 한 시간 남짓 열리는 참 작은 벼룩시장이다. 사실 규모라고 할 것도 없는, 현수아저씨가 펼친 좌판하나, <낮선아침> 편집위에서 펼친 좌판하나, 도합 두 개 뿐. 너무 초라하다고 해도 달리 할 말없는 구색이다. 하지만 노숙인 아저씨들은 이제 그 초라하고 불품없는 우리의 물품들과 그 시간을 기다리신다. 벼룩시장이 시작된 뒤 계절이 몇 번 지나면서 제법 친숙한 얼굴들도 생기고, 벼룩시장의 단골노숙인 아저씨들께서는 먼저 안부도 물으신다.

판매물품들도 처음엔 편집위원들이 각자 집에서 입지 않고 있는 옷을 비롯해 양말, 비누, 치약, 샴푸 등 생필품을 갖고 나왔다. 이후 평화장터에서 택배비까지 들어가며 기증해주는 계절에 알맞은 옷과 가방, 모자, 양말 등 다양한 물품들과 편집위원들이 벼룩시장에서 판매한 수익으로 다시 구입한 차 종류와 삶은 달걀 등의 먹거리를 준비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낮선아침>에 관심을 애정을 보여준 ‘김해독서모임’에서 보내준 다양한 생필품들 덕분에 제법 벼룩시장이라 불릴 만한 모양새를 갖추 수 있었다. 울무차, 레몬차, 커피믹스 등 노숙인 분들이 좋아할 만한 차 종류를 마트에서 다소 저렴하게 구입한 후 시간을 들여 다양하게 소포장을 해서 들고 나가지만 팔면 팔수록 손해인 장사다. 소포장에 들어간 물건 값대로 다 받을 수 없어서이다. 그러나 애초에 이익을 남기겠다고 시작한 일이 아니니 당연하다 여긴다.

처음 <낮선아침>의 편집회의를 하면서 편집위원으로 함께하게 된 자립노숙인 김현수 아저씨께서 노숙인벼룩시장을 제안하셨고, 그 뜻을 함께 한지 1년이 넘었다. 사실 처음엔 먼저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덩달아 물건들을 갖고 나오는 분들이 생겨날 줄 알았다. 갖고 계신 애장품을 들고 나온 분이 한분 있긴 했지만 두 번 정도 나오고는 안 나오신다. 그만큼 팔 물건도, 별 수익도 없다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한 달에 한번, 그것도 잠시이지만 노숙인 벼룩시장이 열리는 곳의 풍경은 여느 시장 못지않게 떠들썩하다. 돛자리가 펼쳐지고 팔 물건이 정리되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급하기만 하다. 좌판이 정리되기도 전에 이것저것 가격을 물어보고 연신 입어보고 맞춰보고 하신다. 좋은 물품을 선점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요즘처럼 추위가 닥칠 때에는 두터운 외투경쟁이 치열하다. 특별히 찾는 옷이나 사이즈가 없을 때는 다음 벼룩시장 때 들고 오라고 주문을 하기도 하신다. 아무리 저렴한 가격이라고 해도 그 흔한 ‘고객불만’ 한 번 없고, 괜찮다고 사양하는 친한 동료의 옷까지 챙기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의 편견은 참으로 알량하다는 생각이 든다.

안타까운 것은 1년이 지나면서 <낮선아침> 편집위원이 일부 교체되고 그간의 노숙인벼룩시장이 계속될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편집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더 참신한 모습으로 거듭날지도 모르겠다. 분명 그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시간이 되면 물품을 들고 나타날 우리들을 먼저 기다리고 계시고, 상자를 덩석 들어 옮겨주시고, 구경만 하면서도 “참 좋은 물건이 많네.”하며 분위기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들이 그곳에 여전히 계시기 때문이다.

경험자로서의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노숙인 분들은 흰색을 비롯한 밝은 색 옷보다는 진한 색, 코트보다는 점퍼를 더 선호하신다.

김경화 : 설치미술가, 전 낮선아침 편집위원



김씨의 익숙한 하루 ※ 요일별

김○○(각 단체마다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

- 오전 10:30 진역 카스테라빵 1개, 요쿠르트 2병

화

- 오전 07:20 광안리 남부민교회 경비실 300원-400원-500원(선착순)
- 오전 09:20 매달 첫주 화요일 양정역 2번 출구 양정교회 주차장 경비실 500원
- 오전 10:00 초량역 5번 출구 삼일교회 500원
- 오후 01:00 못골역 4번 출구 성결교회 500원
- 오후 01:20 못골역 4번 출구 대연동교회 500원(노란색표 지참 필수)



수

- 오전 07:00 지계골역 1번 출구 부산동교회 예배 후 차비 1,000원 국수
- 오전 09:20 대티역 1번 출구 산정현교회 500원(선착순 50명까지)
- 오전 10:00 양정역 2번 출구 제일교회 첫째주 - 셋째주 1,000원
- 오후 01:30 부산진역 7번 출구 수정교회 육개장사발면 1개
- 오후 02:00 연산동 양문교회(예배후) 1,000원



목

- 오전 09:30 좌천역 1번출구 부산제일감리교회 커피1잔, 육개장사발면1개
- 오전 09:00-9:20 매월 마지막 목요일 부산진역 1번출구 성일교회 새우탕면 1개

금

- 오전 09:20 경성대 부경대역 5번출구 용호동 한빛교회 1,000원
- 용호동 일대 교회 돌면 약 1,800~3,800원 가능(조건 성실)
- 오전 11:00 거제역 8번 출구 범원뒤 무상사(번호표 확인 식판밥)

토

- 오전 08:30 매월 마지막 토요일 체육공원역 2번출구 대지장로교회 예배 1,000원 지하에서 아침제공
- 김해 일대 돌면 약 5,000원 가능(조건 성실)
- 오전 11:00 거제역 8번 출구 범원뒤 무상사(번호표 확인 식판밥)
- 정오 12:00 부산 시청뒤 녹음광장에서 밥퍼공동체(식판밥)



일

- 오전 07:00 양정역 2번 출구 양정중앙교회 예배 후 1,000원 지하에서 국수
- 오전 09:00 온천장역 5번 출구 소정교회 9시 예배 후 2,000원 점심 밥 제공 10시 20분에 점심제공
- 오후 02:00 남포역 6번출구 화평관 예배 후 1,000원

〈단체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소별

부산진역 8번출구 무료 급식소

아침

매주 **수요일** 06:30 두춣대교회 국밥
매주 **금요일** 06:30 두춣대교회 국밥

점심

월 10:30 기장 살림회복선교센터(카스테라 빵1, 요쿠르트 2개)
12:00 물만골 사랑나라 식판밥
화 12:00 밥퍼 식판밥
12:00 대한적십자 매월 셋째주 화요일, 식판밥
수 12:00 김해 가나안교회 식판밥
12:00 대한적십자 매월 셋째주 수요일, 식판밥
목 12:00 신빈회 식판밥
금 12:00 밥퍼 식판밥
토 12:00 김해 가나안교회 식판밥
일 12:00 무지개 식판밥



저녁

월 16:30 광장밥상 국밥
화 16:30 수영로교회 매월 2번, 김밥 1줄, 겹라면 1개
18:30 매월 2번, 수제비
수 14:00 찾아가는 영화관 커피와 빵
16:30 밥퍼 국밥
목 16:30 밥퍼 국밥
금 16:00 아름다운 이들의 만남 생음악과 신청곡
16:30 명장동 예인교회 국밥
토 16:30 한우리 식판밥
일 16:30 신빈회 식판밥

용두산공원(일명 용골)

매일 아침 06:30 국밥
점심 12:00
매주 첫 **화요일**은 짜장면(월1회)
저녁 ×

※단체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역 찾아가는 영화관

매주 **수요일** 2시
커피,다과 제공, 영화상영 무료, 인문학강의
주최_ 문화재단



낮선아침 정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비슷한 조건을 가진 구직자들이 적은 일자리를 가지고 경쟁하는 지금,
취업에 성공하려면 남들보다 부지런한 마음을 가지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취업정보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취업으로 이끄는 정보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취업할 수 있는 기회 '낮선아침'에서 찾아드립니다.

- 부산고용센터 ☎051)860-1919 시청역 1번 출구
- 새희망고용지원센터 ☎051)463-7709 초량역 9번 출구(프랑스문화원 뒤)
- 부산광역시 일일취업안내소 ☎051)635-1919, 631-9199 초량역 9번 출구
- 안인환 직업소개 ☎051)469-2070 부산역 7번 출구
- 전진 인력개발 ☎051)464-1604 부산진역 5번 출구

낮선아침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1. 노숙인 작품을 모집합니다.(시, 소설, 그림 등)
2. 노숙인 사진모델 구합니다.
3. 일반인 독자투고 받습니다.
4. 노숙인 분들을 달리 부를 이름 공모합니다.

※모두 소정의 원고료 있습니다. 문의_ 부산문화재단 문화복지팀 051-745-7264

5. 홈리스 분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후원해 줄 수 있는 기업을 찾습니다.

문의. 동구쪽방상담소 사례관리사업 ☎051-462-2017

동절기 긴급 응급잠자리 소개

1. 응급잠자리 설립일자 : 2008년 1월 2일

2. 응급잠자리 면적

순서	장 소	단위(mm)	넓이(㎡)		취침가능 인원
			소수점3자리에서 반올림	평수	
1	취침실	7600×11800	89.68	27.12	36명
2	코골이방	2513×5800	14.58	4.41	6명
3	신규방	2400×3000	7.20	2.18	6명
4	여자방	3000×3000	9.00	2.72	4명

3. 응급잠자리 근무자

- 가. 직원 : 2명
- 나. 자활근로자 : 3명

4. 응급잠자리 이용현황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평균 인원	50	49	39	29	25	21	21	21	22	16	17	18	328

5. 응급잠자리 입소조건

- 가. 입소대상
 - 1) 본 시설에 입실을 희망하는 자
 - 2)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경찰관서 등에서 의뢰되어 온 자
 - 3) 기타 시설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나. 이용제한 대상
 - 1) 당직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 : 1주일간 이용정지
 - 2) 건강(재)검진 미검자 : 건강(재)검진 결과 확인 시 까지 이용정지
 - 3) 음주자 : 당일 이용 금지
 - 4) 약물 의존자 : 약물치료 관련 프로그램 참여시까지 정지
 - 5) 시설 물품을 임의로 가져가는 자 : 3개월 이용 정지
 - 6) 금품갈취자, 기물파손자, 폭행자 : 3개월 이용 정지



-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익일 관할 동·구청에 통보
- 8) 기타 단체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자

6. 응급잠자리 위치 및 연락처

- 가. 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동천로 108번길 14 (전포2동 667-3)
- 나. 연락처 : 051)463-1127
- 다. 위치



자료제공 : 부산 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

더불어 함께 나누는 단체들

결국은 해를 넘겼다. 2013년 겨울호가 지각을 한 셈이다.
 기다렸을 독자 여러분께 미안하다. 이 겨울이 심상찮다.
 몸을 움츠려들게 하는 추위만큼이나 상식을 벗어난 세상일들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스스로를 건사하는 게 살아가는 지혜다.
 사람은 우주다.
 아침저녁으로 스스로의 존엄과 고귀함을 되새김질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편집장 장병윤

노숙하시는 분들을 돕는 기관

- 부산노숙인종합지원센터 ☎ 051)463-7707 동구 초량3동 1145-10(초량지하철역 근처)
-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 051)463-1127 진구 전포2동 667-3 응급잠자리 (서면지하철역 밀리오레 근처)

쪽방 여인숙에 거주하는 분들을 돕는 기관

- 동구쪽방상담소 ☎ 051)462-2017 동구 수정1동 345-5 대성빌딩2층
- 진구쪽방상담소 ☎ 051)807-5663 진구 전포2동 660-19(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앞)

노숙을 하시다가 쉼터에 거주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관

- 금정희망의집 ☎ 051)526-1033 금정구 서3동 171-12(서동 시장 입구)
- 애빈회(愛貧會) ☎ 051)338-1924 북구 구포2동 776-1(지하철 2호선 구명역)
- 부산밥퍼나눔자활센터 ☎ 051)711-8800 진구 연지동 46-23
- 삼복의 집 ☎ 051)312-0675 사상구 주례동 690-34
- 소망관 ☎ 051)464-4603 동구 초량3동 1145-10(초량지하철 역 앞)
- 화평생활관 ☎ 051)412-0191 영도구 대교동1가 24-2(영도 경찰서 뒤)
- 마리아구호소 ☎ 051)263-3902 사하구 장림2동 86-3

〈낮선아침〉은 남포문고, 영광도서, 교보문고, 센텀시티 교보문고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이용권
여행이용권
스포츠관람이용권

하나로 누리는 카드
세 배로 즐기는 문화

**2014년 2월
문화누리카드로
하나가 됩니다**



· 문화누리카드는 2014년 2월 24일 선착순으로 발급됩니다.
· 시군구(주소지 기준)의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기존 문화·여행·스포츠관람이용권을 발급받으셨던 분들께서도 신규 발급신청이 필요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상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우선돌봄

지원내용

신청자격을 갖춘 이에게 문화누리카드 발급

세대카드 1매(연간 10만원)

청소년 개인카드 발급(연간 5만원/ 세대당 최대 5매까지 신청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중 만 6세~19세(1995년~2008년 출생자)

사회복지시설거주자 개인카드 발급(연간 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인 경우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주관  부산문화재단

후원  복권위원회

 부산문화재단

608-801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

TEL : 051 745 7244(7262~7264) FAX : 051 744 7708 www.bscf.or.kr